



space 교류공간, 식당: 바다와 맞닿은 통창의 식당으로 단지 식사를 하는 것 아닌 자연을 품어 식사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.

furniture design: 식당에 맞춰 데스크를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모든 사용자가 취향에 맞게 간단한 소스 커미팅을 선택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선택이 자유로워 중추적이며 저점심을 돕는다.

space 교류공간, 카페테리아: 교류 공간 속에서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요소를 실내로 도입하고 중앙이 아닌 벽을 테라피스트로 배치하여 다른 교류 공간과는 대비되는 차분한 공간을 두었다.

furniture design: 물결의 핵심으로 휠체어와 일반인의 구분을 없애 휠체어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움직일 수 있으며 유선형의 각이 지지 않는 안전한 위안 접근성을 제공한다.

space 거주공간, 개인실, 화장실: 개인실은 오로지 편안함을 위하여 설계하며 무거운 거울의 우도 역시 최소화 하였다.

furniture design: 개인 욕실은 현대적이고 미니멀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배려를 담았다.